

임석재 선생님의 학문세계와 파격미

채 희 완
부산대 무용학과 교수



1987년 여든 다섯 살의 나이로 선생님의 이름을 밝혀 임석재 전집 1 『한국구전설화 평인북도편 1』이 평민사에서 펼쳐 나오자 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 출판계는 경탄해 마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북 5도를 두루 꿰고 남한의 각 도를 망라하여 첫 권이 나온 지 꼬박 여섯 해 만에, 12권으로 묶어 전집 기획물이 완간되고서는 그 연세에 쏟아부은 학문적 열정과 투혼에 아는 사람마다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전국 방방곡곡에 묻혀있는 옛 이야기들을 캐내어 모은 방대한 분량도 그러하려니와, 제보자의 숨결이 옆에서 느껴질 만큼 당대 그 지역의 사투리를 살려 살아있는 말글로 옮겨낸 점이라든가, 이제는 좀체로 접하기 어려운 북한의 구비자료를 남한에서도 수집, 제공하고 있는 점 등에서 최인학 교수

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이 전집은 본격적인 설화 자료집의 효시임에 분명하다. 이제서야 나온 책이 그 방면의 효시라니? 그 동안 손진태, 김소운, 최상수 등 선학의 자료집과 최근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낸 『한국구비문학 대계』는 이 방면에 소중한 성과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임석재 선생님의 전집은 이를 한꺼번에 뛰어 넘는 한국 민속학 1세대의 현장자료의 결정판인 것이다. 가히 '또 하나의 삼국유사'라 일컬어 손색이 없다 하겠다. 특히 이들 자료가 1920년대 중후반에서 시작하여 '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무려 70년에 걸친 현장작업의 결과라지 않는가. 그것은 경이를 넘어서 하나의 기적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후학으로서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구비문에 연구는 한 분의 학문적 마무리로써 이제금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어야 할 계제가 되었다. 그것은 한 판 뒤

집기 같은 학문적 반전이요, 있는 것을 고스란히 옮겨 모양새를 바꾸어내는 은근한 뒤흔들이자 한국적 학문의 한 파격인 것이다. 어느 학회의 학술발표회에 참가하여 모범생처럼 끝까지 경청한 끝에 회합이 마무리되어 결정난 결론을 선생님이 나서서 기여코 뒤엎어 반전시키시곤 하던 '사건'과도 무슨 연관이 있을 듯도 싶다. 선생님의 일상사 자체가 매양 그러하셨다.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 편이 세 권으로 묶여져 나온 이듬해인 1989년 6월, 마당 세 살극장 레스토랑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의 일화 또한 이를 잘 일러준다. 그 자리엔 일흔살이 넘은 노인네 열일곱 분이 말쑥한 양복차림으로 우르르 나오셔서 선생님께 절을 하시고 합동사진을 찍으셨다. 이들은 선생님이 경성제대를 졸업하시고 1931년부터 10여 년간 평북 선천 신성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실 때의 제자분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재야인사로 존경받는 제훈제 선생님도 계셨는데, 같이 자리한 우리도 선생님이 그 선생님의 선생님인 줄 그제서야 알고 새삼 놀라워하였다. “계 선생이 낸 그 숙제물 원본은 내가 60년간 잘 보관하였는데 이제 돌려 줄까?” 그 자리는 이내 웃음판이 되었다. 평안도 설화집에는 60여 년 전 그 학교의 학생들이 방학숙제로 낸 꼬막글들이 원본 그대로 실려있었던 것이다. 당사자들은 깜짝 있고 있었을 법한 60년 전 숙제물을 선생님께서 일제 강점기에다 그 술한 동안과 역사적 격변기를 넘기고 고이 간직하셨다가 책으로까지 내어 주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선생님의 교육자로서, 학자로

서, 아니 한 인격체로서 그 깊이 모를 풍모에 말할 수 없는 존경심과 고마움과 함께 학문적 외경심을 어찌지 못하였다. 선생님의 관심은 본래 심리학에서 출발하여 인류학, 민속학 등으로 확대되었다.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민족에게도 그렇게 자신을 말하는 이야기가 있어 민족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선생님은 옛날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최길성 교수는 선생님의 설화 연구 동기를 밝히신 바 있다. 출판기념회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민족의 마음 읽기라고나 할까. 선생님의 현장작업은 민족의 마음발을 일구는 생산노동이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 말, 우리 글을 금압했던 일제 시대에 큰 탈 없이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긴긴 세월 비밀을 지켜준 제자들이 애국했다 하시고 이를 고마워 하셨다. “가까이 모시고 보고 들은 임석재 선생님의 일화 50”을 쓰신 최래옥 교수는 이를 두고 이것이 원초적 애국심이고 사제간의 의기투합이며 이심전심의 독립정신이라 일렀다. 그 일화에는 출판기념회의 이런 후일담도 있어 선생님의 인품과 함께 촌철살인하는 오늘날 한국적 해학을 엿볼 수 있다.

책을 내도록 해준 제자들에게 60년 만에 보답하신다며 주머니돈으로 책을 사서 30여 권을 무겁다는 내색도 없이 손수 들고 출판기념회장에 오셨었다. 책을 받은 이들마다 자기 이름이 있는가부터 들춰 보았는데, 이름 실린 제자들로서 그 뿌듯함은 어땠

겠는가. 그러나 자기 이름이 없는 제자들은 일흔 살 넘은 상노인네임에도 이내 시무룩해 하기 마련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평생 교단에 선 선생님 출신도 있었는데 그 기가 죽은 제자의 등을 도닥거리시면서 “자네는 숙제하랄 때 땀땀이 치고 이제 와서 후회하나? 원, 철이 이리 늦게 나서 어디 쓰나? 지금이라도 잘 해…” 그래서 웃음꽃이 피었다. 그런데 제자 중에 지금도 모범생이라 불리우는 분이 계셨더라. 당연히 제 이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의아해 하자, “아, 자네는 물론 착실해서 숙제는 잘 냈지. 열심히 낸 것을 내가 왜 모르겠나? 그런데 자네는 사투리로 안 쓰고 표준말로 써냈기 때문에 실을 수가 없었네.” 이러시자 또 다들 웃었다. 이런 일화를 들으면 마치 초등학교 때 소풍가서 보물찾기하다가 찾고 못 찾고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던 어린시절 아득한 정경을 실향민이 고향 그리듯 떠올리게 된다.

선생님의 일거수 일투족에 숨은 삶의 깊은 뜻과 멋을 미처 헤아려보지도 못한 채 우리는 주제넘게 그런 흉내를 내어 선생님을 애써 본받으려고 해보긴 하나 평생 가도 불초임에 어찌랴. 부끄러울 따름이다.

가령, 선생님이 그 옛날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내게 하시고 60년 동안이나 보물상자처럼 잘 간직하신 일을 우리도 흉내 내어 실습해 보기로 한다.

아를테면 예술대학의 강단에 서는 우리로서는 예술론 같은 시간에 학생들에게 예술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술이란 나에게 무엇인가 하는 따위의 과제물을 내

게 하는 것이다. 논제로서는 이밖에도 자기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자기 전공 말고 다른 예술 장르에선 어떤 전시물이나 공연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 점검하듯 예술평문 같은 것을 쓰게도 해보고, 또 때로는 현재 구상중인 예술작품의 작업일지 같은 것을 기록해 보게도 하는 것이다. 물론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진솔한 자기고백적인 내용이어야 함을 꼭 지키도록 하고, 요즘 흔한 컴퓨터에 올리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원고지에 자필로 쓰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필답고사를 대신하거나 적어도 필답고사보다 더 비중을 두어 성적을 매긴 후 없애지 않고 몇 년씩을 쌓아 뒤 보는 것이다. 이들 중엔 분명히 우리나라 예술의 앞날을 짚어질 훌륭한 예술가가 나올 터이다. 이들이 일가를 이루어 혹시 나중에 찾아 오기라도 하면 해묵은 그 일기장 같은 과제물을 숨겨놨다 보여주는 것이다. 그 정경 또한 어찌 흐뭇하지 않으랴. 젊고 푸른 예술학도 시절 품었던 생각이나 고민거리가 비록 치졸했다 하더라도 그의 글은 자신의 예술역정을 잠시 되돌아 보게 할 터이고, 그래서 멋쩍고 겸연쩍어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한 순간일 뿐 비밀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끼리 오가는 남다른 교감에 이내 웃음꽃을 피워낼 것이다.

이런 속셈을 하고 한 십여 년간 과제물(리포트)을 학기마다 모아 두고 있으나 여태까지 찾아오는 이 한 사람 없다. 예술가로 대성하기엔 아직도 짧은 연륜이라 그러려니 하고 말지만, 비좁은 연구실에 큰 면적을 차지하고 쌓여가는 과제물을 보면 참

가당치도 않다. 이게 무슨 보물단지라도 된단 말인가, 야속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장구한 보존기간을 생각하면 어찌지도 못하고 속절없이 세월만 흐르도록 '냅뉘'하고 있을 뿐이다.

선생님은 『한국구전설화집』 12권을 내신 후 여세를 몰아 그 다음다음 해에 『한국구연민요』를 최고급 CD로 5장을 내셨다. '60년대 이후 무거운 릴 녹음기를 등짐에 지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무른 매주 밟듯하여 채취한 수많은 구전가요 중에 가려뽑은 명음반이다. 민요에 관한 한 세계 일류의 90대 명 DJ로서 곡마다 명해설을 붙이셨는데 선생님의 구술 자체가 또 하나의 중요문화재라 해야 할 것이다. 구수한 입담도 그러하려니와 선생님 자신이 구전자료의 보물단지인 것이다.

선생님은 이윽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구십 평생 모으신 자료를 정리하여 앞으로 십년은 민요의 채록본을 한 열 권 내시고, 그리고선 또 10년간 국사설집을 내시고, 그 후 10년은 탈춤대사본을 내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이런 웅대한 계획의 실현은 후학들에게 아낌없이 양보하시려는 것인가. 선생님은 올해 대자대비 부처님 오신 날 극락세계 연화봉으로 떠나셨다. 1903년 윤 5월 1일에 나셨으니 꼭 찬 95년 세월을 이 땅에 머무시고, 김포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모님과 나란히 마지막 자리를 같이 하셨다.

영결식을 마치고 장지를 찾은 상주들과 친지, 제자분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오갔다. 10분이 멀다고 뜨고 앉는 비행기 굉음에,

평생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사신 분이어서 얼마나 시끄러우실까. 아니지, 한 평생 어린이와 꽃과 노래와 춤을 좋아하시더니 이제는 심심파적으로 비행기 소리를 노래 삼아 더불어 온 세상천지로 여행을 떠나시니 얼마나 재미스러우실까.

선생님과 같은 연배였던 우현 고유섭 선생님은 한국예술이란 민예적인 것이매, 예술과 생활과 종교가 매한가지라고 하셨다. 선생님은 한국종교의 원천인 무속의 신이 바로 한국인의 마음을 반영한 인간적인 것임을 갈파하신 바 있다.

선생님의 생활은 그대로 학문이자 교육이자 신적 인간사로 모두가 매한가지였다. 선생님과 연관된 일화 자체가 구비자료이자 행위전승이요, 삶의 지혜를 모두어 낸 하나의 예술작품인 것이다.

고유섭 선생님이 한국미술의 특성을 일러 "어른 같은 아해", "구수한 큰 맛", "무계획의 계획"이라 하셨는데 선생님의 학문에서, 교육에서, 나아가 신적 일상사에서 우리는 한국예술의 그러한 특성을 꼭 짚어낼 수가 있으니, 선생님은 살아계셔서 '전설적인 예술'이 되시었고 멀리 떠나셔도 '되살아나는 신화'가 되시었다. ■

채희완/서울대 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청주사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 부산대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민족미학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공동체의 춤 신명의 춤』, 『한국의 민중극』(공편), 『탈춤』 등이 있으며, "집단연희의 예술체형으로서의" 신명 외 탈춤과 민족미학 관계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